여수 화학기업 온실가스 감축협약

LG화학·금호석유화학 포함 20여사 … 지구 온난화방지 적극 협력

여수 국가산업단지의 화학기업들이 온실가스 배출 감축를 위한 협약을 체결한다.

여수시에 따르면, 오현섭 여수시장과 금호석유화학 열병합발전소, 휴켐스, LG화학 NCC공장, 호성케멕스 등 20사의 공장장이 참여한 가운데 3월18일 한국산업단지공단 여수지사 대회의실에서 온실가스 배출 감축를 위한 협약을 체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자는 "기후변화 협약에 관한 국제 대응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통한 지구온난화 방지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는 견해를 밝힐 예정이다.

앞서 여수시는 2008년 6월 제일모직 여수공장 등 15개사와 온실가스 자율 감축협약을 맺은 바 있다.

여수시 관계자는 "2012년 세계박람회 개최도시로서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 대응을 통해 지구환경 보호 및 대기 질을 개선해 나가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9/03/17>